

담배 함유 화학물질 표기 의무화

FDA, 암모니아·일산화탄소·포름알데히드 대상 ... 총 93가지 함유

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담배와 썬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담배 생산기업들이 담배갑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.

FDA가 3월30일(현지시간) 발표한 예비검토지침은 담배 생산기업들이 암과 폐질환 및 여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20개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하도록 했다.

FDA는 늦어도 2013년 4월부터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정보를 표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.

표시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,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 등이다.

담배는 유해하거나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93개가 지목되고 있으나 FDA는 1차적으로 20개만 표시하도록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2>